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정치학석사 학위논문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관용의 미시적 기초

– 정치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2023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김 민 재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관용의 미시적 기초

– 정치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강 원 택

이 논문을 정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 년 7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김 민 재

김민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 년 7 월

위 원 장 _____ 한 정 훈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강 원 택 _____ (인)

위 원 _____ 안 도 경 _____ (인)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그리고 이념적 정체성의 정렬 수준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관용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검증함으로써 “한국 정당지지자의 극심한 정서적 양극화는 반드시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낮은 정치적 관용을 동반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다. 특히, 2016 년 한국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이 이들의 정치적 관용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나아가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선호의 미시적 기반에 강한 당파적 정체성이 존재하는 맥락에서는 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던 높은 수준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 정치적 관용 수준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감소하였다. 또한,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쟁점 선호 일관성은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그 방향성에서 상이하게 작용하였는데, 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켰으나 정치적 관용의 수준을 증가시켰다. 마지막으로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 결과, 두 변수가 정치적 관용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각각 별개의 경로를 통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절효과 그래프를 통해서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의 수준이 매우 강한 맥락에서는 높은 수준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

당파적 정렬이 정치적 관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오히려 유의하게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정당지지자가 갖는 당파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 일관성이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효과의 유의성 및 방향성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관용을 분석함에 있어서 당파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에 관한 태도가 어떠한 제약 수준을 보이고 있는지 그 배열 방식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정치적 관용의 분석에 있어서 정치적 반대 집단이 정치적 선호와 성향에서 서로 차이를 갖는다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차이의 성격과 제약의 수준이 얼마나 인지적인 과정을 함의하는지의 여부가 관용 수준 결정에 중요할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정당지지자 간의 극심한 정서적 양극화가 반드시 낮은 정치적 관용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정치적 관용의 미시적 기초를 분석함에 있어서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의 상호작용을 보는 후속 연구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주요어 : 정치적 관용, 정서적 양극화, 당파적 정체성, 당파적 정렬, 쟁점 선호 일관성

학　번 : 2021-26598

목 차

제 1 장 서 론……1
제 1 절 문제의 제기……1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4
제 3 절 논문의 구성……5

제 2 장 선행 연구 검토……7
제 1 절 정치 갈등과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관용……7
1. 정치 갈등과 정치적 관용의 의의……7
2. 정치적 관용의 개념과 국내외 연구 동향……9
3. 정치적 관용의 영향요인……12
제 2 절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16
1.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 정치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 일관성……16
2.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 효과……23

제 3 장 연구 방법……29
제 1 절 연구 가설……29
제 2 절 분석 자료 및 대상……32
제 3 절 주요 변수 설정……33
제 4 절 분석 방법……37

제 4 장 경험적 분석……38
제 1 절 기초 통계 분석……38

1. 측정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38
2. 측정변인들에 대한 상관분석·····42
제 2 절 정치적 관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44
1.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의 영향요인·····44
2. 당파적 정렬과 정치적 관용 간의 관계에서
쟁점 선호 일관성의 조절효과 분석·····57

제 5 장 결론·····63

참고문헌·····66

Abstract·····74

표 목차

[표 1]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특성……39
[표 2]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의 특성……40
[표 3]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의 강도 및 기타 통제변인의 특성……41
[표 4] 정서적 양극화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당파성 가설 모형……45
[표 5] 정치적 관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당파성 가설 모형……47
[표 6] 정서적 양극화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쟁점·정책 가설 모형…51
[표 7] 정치적 관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쟁점·정책 가설 모형……54
[표 8]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정치적 관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합모형……59

그림 목차

[그림 1] 당파적 정렬과 정치적 관용 간 관계에서
쟁점 선호 일관성의 조절효과……6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본 논문은 최근 한국 정당지지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불관용을 이들이 갖는 당파성과 쟁점 선호 일관성이라는 정치적 선호와 성향의 배열 방식에 비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문제는 한국 사회의 양당을 중심으로 하는 유권자 내 정치적 반대 집단 간의 정치·정서적 양극화가 반드시 정치적 불관용을 수반하는가의 여부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2016 년 한국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지지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에 이들이 갖는 지지 정당에 대한 호감도의 강도, 정당호감도와 이념 성향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쟁점 태도 간의 일관성의 배열 방식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최근 들어 한국 정당지지자들의 극심한 정치적 갈등, 특히 정서적 양극화에 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논의들은 양당 지지자들이 자신과는 다른 성향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정치적 선호와 성향의 차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인식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정치적 반대 집단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축출과 제거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극단적인 정치적 불관용의 현상이 관측된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6 년 한국의 정당지지자들이 갖는 정치적 정체성과 여러 쟁점에 대한 태도의 어떠한 특성과 상호작용이 이들 간의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불관용을 야기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치적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들의 상이한 정치적 정체성 및 태도의 존재와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경쟁과 대립이라는 정치적 갈등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정치 양극화 현상이 정치적 공동체 내에서 꼭 부정적인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정치적 양극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정당지지자가 갖는 정치적 정체성 및 태도의 강도와 이들의 상관관계의 영향요인에 주목한다. 즉 정당지지자가 갖는 정당일체감과 상징적 이념성향, 그리고 쟁점 선호라는 정치적 선호가 강해지고 이들 간의 조응도가 높아질수록 정치적 반대 집단과의 차이를 더 크게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정체성 및 쟁점 태도의 차이로 인해서 정당지지자들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정서적 양극화 현상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 규정되고, 이들 간의 정치적 간극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치적 정체성과 쟁점 태도들을 교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요컨대 정서적 양극화라는 배타적인 정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립하는 정당지지자들 간의 교점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기존 연구의 주된 함의이다.

한편 정치 갈등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정치적 선호와 의견이 공존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의 과정을 통해 교류되어 해당 정치적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익한 가능성 또한 지적한다. 그렇다면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정당지지자들 간의 정치·정서적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재하는 정치적 갈등을 이들이 어떻게 다루고 건설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진다. 나아가 이러한 정치 갈등의 순기능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태도로서 정치적 관용의 중요성을 고려하게 된다. 정치적 관용은 상대방의 의견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려는

의지로서 자신이 반대하는 집단에게까지 공적 영역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려는 의도적인 자기 규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적 관용의 개념을 통해 정치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 간의 관계를 재조명할 수 있는데, 즉 정당지지자들 간의 정치적 차이에 의해서 대립하는 현상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정당지지자들이 정치적 차이에 의해서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납하고 어떻게든 정치적 공론장에서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는 것 또한 의미를 갖게 된다.

본 논문은 정당지지자들 간의 정서적 양극화를 다루는 선행 연구들이 정당지지자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라는 정치적 태도의 강화와 상관관계 증가로 인한 정서적 양극화가 수반하는 정치적 불관용을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동시에 두 현상 간의 관계 및 역학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는다. 즉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 간의 관계는 경험적으로 더욱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며 따라서 정당지지자들 간의 극심한 정서적 양극화가 반드시 낮은 수준의 정치적 관용을 동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구문제로 설정한다. 특히 높은 수준의 쟁점 선호 일관성은 정당지지자 스스로와 정치적 반대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유발함으로써 정서적 양극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현상과 판단에 대한 일정 수준 인지적 숙의 능력을 요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쟁점 태도의 일관성이 갖는 일정 수준의 인지적 정교화의 가능성을 통해 반대하지만 용납한다는 정치적 관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극심한 정서적 양극화가 반드시 낮은 정치적 관용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정치적 관용의 미시적 기초를 분석함에 있어서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의 상호작용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논문의 목적은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그리고 이념적 정체성의 정렬 수준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관용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검증함으로써 “한국 정당지지자의 극심한 정서적 양극화는 반드시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낮은 정치적 관용을 동반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다. 특히, 2016 년 한국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이 이들의 정치적 관용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선호의 미시적 기반에 강한 당파적 정체성이 존재하는 맥락에서는 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던 높은 수준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 정치적 관용 수준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한국 정당지지자들의 당파적 및 이념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의 상호 제약 수준이 정서적 양극화 및 정치적 불관용에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분석하는 것은 정당지지자들이 갖는 정서적 차원의 정체성과 보다 인지적 차원의 쟁점 및 정책과 관련한 선호가 갖는 차별적인 정치적 효과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한국 사회 내 정치 양극화의 수준뿐만 아니라 그 성격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며 이에 더하여 한국 정당지지자들이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해서 갖는 정치적 관용의 미시적 기초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에서는 최근 한국 정당지지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불관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치적 반대 집단 간의 정서적 양극화가 반드시 정치적 차이를 보이는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불관용을 시사하는 것인지에 관해 분석해야 하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한다.

제 2 장에서는 정치적 관용의 학문적 의의와 개념, 그리고 연구동향을 살펴본 후 정치적 관용의 영향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 연구들을 소개한다. 특히 정서적 양극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던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 일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들이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정치적 정체성의 정렬과 쟁점 선호의 일관성의 상호작용이 정치적 관용 수준의 주요 예측 변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탐색한다.

제 3 장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분석에 사용할 자료 및 변수들을 소개한다.

제 4 장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제 3 장에서 제시한 가설들의 채택 여부를 확인한다. 우선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의 수준과 더불어 이들이 갖는 다양한 정치적 정체성 및 쟁점 태도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후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들의 당파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 일관성이 이들의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 차이를 탐색하고, 나아가 정치적 관용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들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앞에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본 논문이 밝힌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함의를 서술한 후,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제 2 장 선행 연구 검토

제 1 절 정치 갈등과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관용

1. 정치 갈등과 정치적 관용의 의의

최근 들어 한국 정당지지자들의 극심한 정치 갈등, 특히 정치 양극화(political polarization)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정치 양극화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정당지지자들이 자신과는 다른 선호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인식을 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축출과 제거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지적한다. 그러나 정치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선호와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이 권력 획득의 문제를 놓고 벌이는 투쟁이므로 개인의 선호와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갈등들은 정치 영역에서 치열하게 표출되게 된다(조진만 외 2011). 즉 정치는 본질적으로 차이를 바탕으로 한 갈등과 경쟁의 과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치 갈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듯이 갈등과 분쟁이 사회적으로 역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가상준 외 2010; 조진만 외 2011). 갈등이란 상대방과의 견해 및 이해 등이 차이를 보이면서 나타나는 대립과 충돌의 상황으로서(가상준 2015), 갈등과 분쟁은 정치적 반대집단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고(Nightingale 1976) 집단의 창의력, 융통성, 적응성 등의 능력을 제고시키는(나태준 2004) 순기능 또한 갖는다. 다양한 정치적 선호와 의견이 공존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경쟁의 과정을 통해 교류되는 과정을 통해 정치공동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정치 갈등 즉 정치 양극화 현상을 바라본다면 해당 정치공동체 내 구성원들이 정치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얼마나 건설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의 내용이 중요해진다.

정치적 반대 집단들이 주요 쟁점들에 대해 파행적으로 대립하고 반목만 할 뿐 대화와 합의를 통해 갈등들을 원만하고 유익하게 해소하는 모습이 부재(조진만 외 2011)한 현 상황에서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태도 중 하나는 정치적 관용(political tolerance)이다. 다원적 원칙(pluralistic principles)과 정치적 이질성(political heterogeneity)은 건전한 민주주의의 기반인데(가상준 2015), 이들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양산하기 때문에 갈등과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관용이 필수적(Gibson 2006)이게 된다. 다시 말해 서로 상이한 선호나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이나 집단이 이를 표출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행동을 기꺼이 허용하며 경청하고자 하는 관용의 자세를 가질 때 사회적 갈등들은 적법하고 유연한 절차를 거쳐 민주적으로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다(조진만 외 2011). 반면 불관용적 태도(intolerance)는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자유주의적 반대당(loyal opposition)의 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Sullivan et al. 1981; Wang and Chang 2006; 가상준 2015). 결국 정치적 관용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사회 통합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가지며, 다양성이 인정되고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적 관용의 부재는 토론과 협의의 기능과 그 중요성을 약화시키며 자유로운 정책 경쟁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가상준 외 2010). 현재 한국 사회의 주요 갈등은 상대방의 의견과 그 상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 양극화의 심화와 더불어 사회의 갈등이 대화나 타협을 통해 해소되기보다는 소모적인 경쟁과 배제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정치적 관용의 의미와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유성진 2019). 요컨대 정치적

관용의 수준을 높이는 것만이 정치 갈등의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시민성이며 갈등 해소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가상준 2015).

2. 정치적 관용의 개념과 국내외 연구 동향

관용에 관한 국외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관용의 개념 정의에서 출발하였는데, 관용(tolerance)이란 "규칙에 대한 합의(commitment)와 이를 구성원 모두에 공평하게 적용하려는 의지(willingness)"로 정의되며, 정치적 관용(political tolerance)은 공적 영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관용과 관련한 것으로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된다(Gibson and Bingham 1982; Lawrence 1976; Mondak and Sanders 2003; Nie et al. 1996; Sniderman et al. 1989; Sullivan et al. 1982). 한편 킹(1976)은 관용이란 반대(objection)와 용납(acceptance)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개념으로, 싫어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부정적 행위를 중지하거나 인내심 있게 참아 내는 태도(김용환 1997)라고 설명했다. 보그트(1997) 역시 관용을 싫어하거나, 반대하거나, 위협적으로 느끼거나, 기타 그 밖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대상과 마주하였을 때 이를 인내하는 의도적인 자기 규제(self-restraint)로서 정의했다(박세나 2022). 종합하자면, 정치적 관용은 상대방의 가치나 의견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집단에 대하여 참고 견딜 수 있는 용의(Sullivan et al. 1979)로서, 자신과 이해를 달리하는 상대방의 의견 및 주장일지라도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허용되어야 하며, 그들의 권리 행사의 일부분으로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포용력(가상준 2015)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관용을 '자신이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대상에게도 자유로운 의견 표현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려는 의지’(박세나 2022)로 정의한다.

정치적 관용에 관한 국외의 경험적 연구들은 정치적 관용의 대상 집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와 수준의 변화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초기의 연구들은 혐오(intolerance), 즉 “정치적 반대 집단이 위협적이라는 인식(the perception that one’s political enemies are threatening)”의 개념(Sullivan et al. 1982)을 중심으로 정치적 관용의 수준을 분석하였는데, 이들은 한 사회 내에서 소수에 의한 정치적 행동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존재할 때, 그 집단에 대한 정치적 억압 요구가 혐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윤종빈 외 2011)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공산주의자, 동성애자 등과 같이 공통적으로 혐오감이 큰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을 측정하면서 논의되었는데(가상준 2015), 정치적 관용에 관한 최초의 경험적 연구로서 스투퍼(1955)의 연구는 당시 냉전으로 인해 이념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들에게 가장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집단인 공산주의자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설문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허용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봄으로써 살펴보았다. 그러나 좌파 집단을 중심으로 측정한 스투퍼의 연구는 편향적인 집단 선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따라서 1976 년 이후 인종주의자, 군국주의자, 무신론자, 동성애자, 공산주의자 등 이념적 분포의 전반으로 대상 집단들을 확대하고 이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보장 여부로 정치적 관용의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윤종빈 외 2011). 그러나 설리반 외(1982)는 이러한 스투퍼의 정치적 관용에 대한 측정방식이 단순히 응답자가 해당 집단에 갖는 호감도를 측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으며 대안적으로 여러 대상 집단을 나열한 후 응답자들에게 가장 혐오하는

집단을 직접 선택하게 하고 이들의 기본권 및 정치 활동에 대해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정치적 관용의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는 정치적 관용의 개념이 내포하는 반대에 대한 용납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포착할 수 있는 측정방식으로 그 타당성이 널리 인정되어 정치적 관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를 측정하기에 앞서 응답자로 하여금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정치 집단을 직접 선택한 후 설문에 답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박세나 2022). 그러나 두 가지 방식 모두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게 보장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치사회적 활동들에 대한 동의의 여부를 단순 취합한 결과가 응답자의 정치적 관용의 수준으로서 조작화 되게 때문에 최종적인 대상 집단의 정치사회적 활동의 내용에 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 두 방식 모두에서 응답자의 정치적 관용의 수준은 이분법적으로 측정된다는 공통점이 있다(유성진 외 2011). 반면 깁슨과 빙엄(1982)은 제시된 정치사회적 활동들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층위의 활동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측정되어야 하며, 나아가 정치적 관용의 수준을 일차원적인 연속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깁슨(2008)은 미국의 정치적 관용과 혐오에 대해 분석하면서, 냉전시기에는 대표적인 대상 집단으로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억압과 혐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탈냉전 시대에는 이러한 혐오 집단이 다양해지고 개인의 정치적 자유의 손실에 관한 인식이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몬닥과 샌더스(Mondak and Sanders 2003)은 개념적으로 정치적 관용의 수준은 연속적으로 측정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일차적으로 정치적 관용(tolerance)과 불관용(intolerance)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후 오직 정치적 불관용만이 연속변수로 취급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유성진 외 2011). 이와 같이

정치적 관용과 불관용에 관한 정확한 측정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치적 관용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의 경우 정치적 관용의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대한 측정과 이를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려는 노력이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역사적, 철학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관용에 대한 국내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관용이 무엇이고 이가 어떻게 이해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 철학적 접근을 토대로 한 경험적, 계량적 연구가 충분히 시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윤종빈 외 2011). 2010 년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정치적 관용에 초점을 맞춘 경험적 연구들이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 연구 몇 편이 이어진 것이 전부이다(가상준 외 2010; 가상준 2015; 조진만 외 2011; 유성진 외 2011; 유성진 2019; 윤종빈 외 2011; 임재형·김재신 2015). 정치 신뢰 및 정치 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선거 참여 및 정부에 대한 평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치적 관용의 수준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이에 비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는데(가상준 외 2010; 윤종빈 외 2011; 가상준 2015), 가상준(2015)은 갈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산출되는 데 비해서 갈등 해결에 있어 중요한 문화적 기반인 정치적 관용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적 관용을 경험적으로 다룬 국내의 몇몇 연구들은 외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정치적 관용 수준에 대한 측정과 변화 그리고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학 분야에서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관용의 수준을 높이는데 있어 교육이 갖는 역할 및 의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정치학 분야에서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인 영향요인에 대한 소수의 경험적 연구가 존재한다.

3. 정치적 관용의 영향요인

현실의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관용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국외의 선행 연구들은 그 주요 요인을 크게 사회·경제적 요인과 심리·성격적 요인 그리고 정치적 요인(Sullivan et al. 1981; 가상준 외 2010; 박세나 2022)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사회·경제적 요인 중 연령은 젊은 세대일수록 이질적 문화나 경험 혹은 집단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 관용과 반비례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ullivan et al., 1981; Mutz, 2002). 마찬가지로 소득수준, 성별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또한 경험의 다양성과 이질적 집단에 대한 수용성과 관련을 보일 때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llivan et al. 1982; 가상준 외 2010; 박세나 2022). 사회·경제적 요인 중 교육은 정치적 관용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고 경험이 다양화되면 이질적 집단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 정치적 관용을 증진시킨다고 제시되고 있다(Bobo and Licari 1989; Stouffer 1955). 특히 골레비오스카(Golebiowska 2020)는 교육과 정치적 관용을 매개하는 변수로서 인지적 정교화(cognitive sophistication)의 영향력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인지적 정교화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들을 의미있게 구성하며, 추가적이고 관련 있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된다(Nie et al. 1996; Bobo and Licari 1989; 박세나 2022). 보보와 리카리(Bobo and Licari 1989)는 교육을 통해 증진되는 추론 과정(reasoning)의 복잡성, 냉정한 2 차적 사고(sober second thought) 등 합리적인 사고와 관련된 요소들이 정치적 관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박세나 2022). 결국 교육이 수반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인지적 정교화는 그 논리성과 반성성을 특징으로 하는 바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불관용을 초래하는 요인들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세나 2022).

한편 개인의 심리·성격적 요인 또한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스스로에 대한 평가(self-esteem) 즉 자부심이 낮을 경우 정치적 관용을 포함한 정치 규범에 대한 사회적 학습이 저해되기 때문에 정치적 관용이 낮아진다고 평가된다(Sniderman 1975). 나아가 권위주의적 성향도 정치적 관용과 관련이 있는데 즉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게 된다(가상준 외 2010). 더불어 이들은 이질적인 집단에 대하여 더욱 큰 위협을 느끼며(Sullivan and Transue 1999), 증거를 주의 깊게 검토하거나, 비판적으로 사고하거나 혹은 신념들과 결론 간의 일관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Altemeyer 1996) 낮은 수준의 정치적 관용을 보이게 된다(박세나 2022).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고자 하는 요인인 정치적 요인으로 주로 논의되는 변수에는 이념, 민주주의적 원칙에 대한 이해, 정치적 위협, 정치적 관심과 지식 등이 있다(Sullivan et al. 1982). 우선 이념은 정치적 관용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대체로 진보적일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보다 새롭거나 이질적인 경험에 대한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높은 정치적 관용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McClosky 1964; 박세나 2022). 또한 법 앞의 평등,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적 규범을 잘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집단이라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원칙에 대한 이해는 정치적 관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된다(Sullivan et al. 1979; Gibson and Bingham 1982; 박세나 2022). 나아가 정치적 관용은 정치적 위협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즉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집단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할 때 이들에 대한 정치적 관용이 낮아지게 된다(가상준 외 2010). 그리고 정치적 관심 및 지식 또한 시민적 자유의 의미나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갖추지 있지

못한 상태에서 높은 정치적 관용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치적 관용과 관련된다(Marcus et al. 1995; McClosky and Brill 1983; 박세나 2022).

한편 국내의 몇몇 경험적 연구들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관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들의 설명력을 확인하고 있는데, 가상준 외(2010)는 한국인의 정치적 관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과 이념이며, 외국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교육,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정치 지식은 정치적 관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유성진 외(2011)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관용의 정도를 혐오 집단의 정치사회적 활동에 태한 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선택된 혐오 집단별로 집단에 따른 정치적 관용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일차적으로 해당 집단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에 영향을 받았고 집단의 영향력과 위협에 대한 인식과 결부되어 있었다. 조진만 외(2011)는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연령과 이념의 영향력을 밝힘과 동시에,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를 통해 필연적으로 양산되는 승자와 패자로서의 지위가 정치적 관용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했다. 승자에 비해 패자들의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더 높았으며 이는 한국의 정치공동체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권리 및 의견 중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더불어 유성진(2019)은 한국 사회의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치적 관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젊은 연령층이 고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적 관용의 수준을 보였으며,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과 같은 정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진보적인 이념 성향과 이념 강도와 같은 개인적인 정향 간의 상호작용 또한 정치적 관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발견했다.

제 2 절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

1.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 정치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 일관성

본 연구는 한국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으로서 정당지지자가 갖는 정치적 정체성(political identity)과 쟁점 선호 일관성(issue alignment)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를 확인하고자 한다. 정치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개념은 주로 정치 양극화(political polarization), 특히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의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에서 다루어진다. 여기서는 이러한 정서적 양극화의 영향요인으로서의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후 정치적 정체성 및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과 정서적 양극화, 그리고 정치적 관용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특히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정체성 가운데 당파적 정체성(partisan identity)과 이념적 정체성(ideological identity)이 정렬(align)한 상태인 당파적 정렬(partisan alignment)과 여러 쟁점에 대한 선호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쟁점 선호 일관성(issue alignment)의 상호작용 효과가 정치적 관용의 주요 예측 변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정치 양극화(political polarization)는 유권자들의 당파성(partisanship)과 이념적 성향, 그리고 정책적 성향에서의 조응도가 증가함에 따라 양 극단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는 현상으로 정의된다(길정아 2019). 이러한 관점은 정치 양극화의 영향요인에 있어서 개인이 갖는 일련의 정치적 정체성과 선호들을 고려한 것인데, 즉 단지 의견의 급진화 현상으로서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배열하게 되는 이념적 분열 및 정치적

선호의 정렬의 과정으로서 정치 양극화를 바라본다. 결국 정치 양극화는 유권자들의 의견의 급진화와 더불어 이러한 의견들이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 혹은 의견들의 제약(constraint)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Baldassarri and Gelman 2007). 본 연구에서도 위의 연구들과 같이 유권자들의 당파성 및 정치적 선호들의 배열의 응집성(coherence) 또는 견고함(tightness)을 기준으로 하여 정치 양극화를 정의하고자 한다.

정치 양극화에 관한 국외의 연구들은 초기에는 정치엘리트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이념적 양극화 즉 정치적 태도의 분포의 측면에서 중도의 비율은 감소하고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세력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정치엘리트 및 정당 간의 이념적 거리가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였으며(Kozlowski and Murphy 2021; 이내영 2022) 현재는 대개 정치엘리트 차원에서의 이념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점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대중 수준에서도 정치엘리트 수준에서 관측되는 이념적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윤성이 2006; 이내영 2011; 정동준 2016; 장승진·서정규 2019; 이내영 2022).

본 연구에서 지적하는 정치 양극화는 엄밀히 말하면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을 의미하는데, 정서적 양극화란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애착과 충성심 등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반면,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반감, 편견, 혐오 등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현상을 의미한다(이내영 2022). 정치엘리트 및 유권자의 이념적 양극화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정치 양극화 연구에서 최근에는 그 초점이 정당지지자들 간의 정서적 양극화로 이동하면서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한국의 정치 갈등의 경우도 이전까지는 주로 정당엘리트 사이의 이념과 정책의 차이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과는 달리, 유권자

수준의 감정적 대립과 반목이 커지는 양상(이내영 2022)을 보임에 따라 정서적 양극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서적 양극화를 다루는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에 관한 두 가지 지배적인 이론적 시각을 제시하는데 각각 당파적 정체성 이론과 이슈·쟁점·정책적 차이 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내영 2022). 이들은 정당지지자의 정서적 양극화의 기저를 이루는 주요 변수로서 전자는 정당지지자들이 갖는 정치적 정체성(political identity)의, 후자는 쟁점 선호(issue preference)의 강도(strength)와 정렬(alignment)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당파적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정당 지지자가 갖는 정치적 정체성으로 당파적(partisan) 정체성과 이념적(ideological) 정체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정치적 정체성은 정치적 편향, 정치적 참여 그리고 정치적 감정을 추동할 수 있다. 특히 유권자가 갖는 당파적 그리고 이념적 정체성이 각각 강해지고 또한 서로 정렬(align)할수록, 개인의 정치적 평가와 행태, 그리고 감정이 더욱 극화된다고 보고된다(Mason 2015). 당파적 정체성 이론은 사회 정체성(social identity)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에 따르면 개인은 특정한 집단의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내집단(in-group)에는 우호적인 감정을 갖는 데 반해서 자신이 속하지 않은 외집단(out-group)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다(Tajfel and Turner 1979). 이때 유권자가 특정한 정당에 대해 갖는 심리적 애착과 소속감을 의미하는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을 정당지지자가 갖는 사회적 정체성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에 따라 구별되는 내집단 정당(in-party)와 외집단 정당(out-party)에 느끼는 감정의 간극 즉 정서적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Mason and Wronski 2018; West and Iyengar 2022). 즉 정당지지자 자신의 정당과 상대의 정당을 적극적으로 구별하고 차별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당파적 정체성이

강화되어 정서적 양극화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이내영 2022). 이처럼 유권자의 당파성(partisanship)은 정당지지자가 갖는 가장 주요한 정치적 정체성으로서, 당파적 정체성을 갖는 정당지지자는 지지하는 정당이 표방하는 몇몇 이슈 위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정당의 번영에 감정적으로 연계될 뿐만 아니라 그 정당의 지위가 위협될 경우 이에 분노하며 이에 맞서기 위해 노력한다. 당파성을 갖는 정당지지자와 정당 간의 관계는 논리적(logical)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정적(emotional)이고 사회적(social)이기 때문이다(Mason 2015). 요컨대 정당일체감이 강한 유권자일수록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보다 강한 소속감 및 애착심을 보이는 동시에 경쟁상대인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반감을 표출하게 된다(장승진·서정규 2019).

나아가 이념성향 또한 정당지지자가 갖는 정치적 정체성 중 하나로서, 유권자 자신이 스스로를 보수적 혹은 진보적으로 여기는지에 관한 자기이념인식이 앞서 살펴본 당파성과 같이 정서적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정체성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Malka and Lelkes 2010). 즉 이념적 정체성이 강한 유권자일수록 지지하는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호감의 차이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정당지지자의 이념적 정체성은 당파적 정체성 보다는 부차적이지만 개인의 정치적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이념적 정체성의 강화는 정당지지자들 간의 정서적 양극화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여기서의 이념적 정체성은 정치적 정체성으로서의 상징적 의미의 이념(symbolic ideology)으로서 이후 살펴볼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선호의 총합으로서의 조작적 의미의 이념(operational ideology)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당파적 정체성 및 이념적 정체성의 강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서로 연관된 정치적 성향과 인식이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한 결과 즉 정렬의 개념과 그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당의 당파적 배열(partisan-ideological sorting)을 통해 유권자들은 당파적 정렬(partisan alignment)을 겪게 되는데 이는 정당지지자들의 당파성과 이념성향과 같은 정치적 성향 및 선호가 더욱 동질적이고 일관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의 경우 과거에 이념 성향과 지지 정당이 일치하지 않았던 민주당원과 진보적인 공화당원이 상당수 있었지만 정치엘리트가 지지자들을 응집력 있게 배열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가운데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과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 가운데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정렬의 개념은 라자펠드 외(1944)와 캠벨 외(1960)의 고전적 연구에서 소개되었던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교차 압력(cross-pressures)'의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데, 메이슨(2015)은 당파적 정체성과 이념적 정체성이 사이의 일관성이 약한 정당지지자 즉 정당일체감과 이념성향이 교차되는 정당지지자는 그렇지 않은 정당지지자 보다 더욱 관용적이며 덜 편향적이고 그리고 외집단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당지지자가 갖는 교차하는 정체성들이 정치적 반대 집단들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줄임으로써 내집단 편향과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Brewer 1999; Brewer and Pierce 2005; Mason 2015). 종합하면 당파적 정체성 이론은 정당지지자가 갖는 정치적 정체성의 강화와 정렬이 정치적 반대 집단 간의 정서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정서적 양극화의 또 다른 미시적 기초로서 쟁점 선호의 강도(strength)와 정렬(alignment)의 영향력이 제시된다(Bougher 2017; Mason 2015; 장승진·서정규 2019; 김기동·이재묵 2021; 이내영 2022). 앞서 설명한 당파적 및 이념적 정체성과 같은 정치적 정체성의 강도와 정렬이 정당지지자가 속한 정치적 집단에 대한 애착심을

증대시킴으로써 정서적 양극화에 기여한다면, 다양한 영역의 쟁점에 대한 선호와 태도가 얼마나 강하고 일관적인가는 정치적 반대 집단과의 쟁점 및 정책에 대한 차이를 보다 크게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정서적 양극화에 기여한다(장승진·서정규 2019; 이내영 2022).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념과 정책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결국 집권 정당의 정책의 전환에 따라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감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정당에 대한 애착은 키우고 경쟁 적당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게 된다(Rogowski and Sutherland 2016; Webster and Abramowitz 2017; 이내영 2022). 본 연구는 정당지지자가 갖는 쟁점 선호의 강도뿐만 아니라 쟁점 선호의 정렬 혹은 일관성의 개념과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정당지지자의 선호의 정렬을 의미하는 쟁점 선호 일관성은 대중의 이념에 관한 고전적인 컨버스(1964)의 연구에서 소개되었던 제약(constraint)의 개념에 근거하는데, 이는 이념적인 개인(ideological individual)이 하나의 의견을 갖는다는 것은 그가 다른 쟁점들에 가질 수 있는 일련의 가능한 의견들을 제약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국 쟁점 선호의 정렬 혹은 일관성은 이념적 일관성(ideological consistency)와 긴밀하게 연계된 개념으로서 당시 컨버스(1964)는 일반 대중에게서 이러한 제약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일반 대중은 “이념성과는 무관하다(innocent of ideology)” 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후 발다사리와 헬먼(2007)은 미국 사회 내 정치 양극화의 양상을 정치적 선호들의 제약의 수준의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면서 쟁점 선호의 당파성(issue partisanship)과 쟁점 선호의 정렬(issue alignment) 개념을 활용했는데, 전자는 여러가지 쟁점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와 정당일체감 혹은 상징적 이념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여러가지 쟁점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유권자들의 쟁점

선호의 정파성은 몇 십년 동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쟁점 선호 간의 상관관계는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나아가 정치적 세련도가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보다 비교적 높은 쟁점 선호의 정렬을 보였다. 이들의 연구는 유권자 수준의 정치 양극화에 관하여 유권자들의 증가된 쟁점 선호의 당파성은 이들이 더 높은 수준의 이념적 응집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유권자 수준의 양극화는 이들 스스로의 선호나 성향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엘리트 내의 양극화로 인한 당파적 정렬의 결과로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루어진 후속 연구들은 미국의 정당지지자들의 쟁점 선호의 강도와 정렬의 수준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가 정치적 반대 집단 간의 극심한 정서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슬로우스키와 머피(2021)는 미국 유권자의 양극화에 관한 발다사리와 헬먼(2007)의 주장의 타당성을 더욱 최근의 데이터를 통해 재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이전과는 달리 미국 유권자들의 쟁점 선호의 일관성이 증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당파적 정체성의 강화뿐만이 아니라 쟁점 선호의 일관성의 강화 또한 증가하는 정치적 적대감과 정서적 양극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종합하면 이슈·쟁점·정책적 차이 이론은 정당지지자가 갖는 여러 쟁점에 관한 태도의 강화와 정렬이 정치적 반대 집단 간의 정서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당파적 정체성 이론과 쟁점 차이 이론을 기반으로한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과 역학에 대한 국내 연구는 서구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최근 들어 정서적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몇몇의 주목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장승진·서정규(2019)는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당파적 양극화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끼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및 이념 성향과 같은

정치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의 일관성 및 강도, 그리고 정치적 세련도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동·이재묵(2021) 또한 정서적 양극화의 결정요인에 대해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유권자의 당파적 정체성, 정치 이념 그리고 쟁점 선호에 대한 강도가 각각 높아질수록 정서적 양극화의 수준이 증가함을 확인했다. 나아가 이내영(2022)은 한국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과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들이 갖는 당파적 정체성의 강도와 양당 사이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차이가 각각 정서적 양극화를 증가시켰으나, 두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종합모델에서는 두 변수의 독립적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고 상호작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종합하면 한국 정당지지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에 관해서 국외의 선행 연구들의 분석과 유사하게 당파적 정체성 이론과 쟁점 차이 이론의 가설의 적실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시에 두 이론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서적 양극화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정서적 양극화의 결과로서 정치적 반대 집단 간의 불관용(intolerance)을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동시에 두 현상 간의 관계 및 역학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 미비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후의 논의에서는 정당지지자의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 간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정서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치적 정체성의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이 정치적 관용 수준의 주요 예측 변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탐색할 것이다.

2.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 효과

본 연구는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의 관계에 주목하여 극심한 정서적 양극화가 반드시 낮은 정치적 관용을 수반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정서적 양극화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들은 정치적 반대 집단 간의 심각한 정서적 양극화가 이들의 낮은 정치적 관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암시한다. 즉 앞서 논의한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정체성으로서 존재하는 당파적 그리고 이념적 정체성이 교차하지 않고 정렬하거나 혹은 여러가지 쟁점에 대한 선호 간의 상관관계가 증가하여 높은 수준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 나타나게 되면 이는 더욱 강력한 정체성이 되고 반대 집단과의 차이를 더 크게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평가, 행태 그리고 감정을 더욱 극화시키고 결국 정치적 관용과 합리적 숙의 능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유성진 외(2011)는 동등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의 보장을 전제하는 관용은 현실적인 적용의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차이에 근거한 갈등요인에 대한 개인의 인식의 고려를 수반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는 대상 집단에 대한 인식 혹은 호감의 정도가 관용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이내영(2022)은 “유권자들이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혐오와 적대의 감정을 상대 정당 지지자들에게 표출하는 정서적 양극화는 국민들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관용과 공존이라는 핵심적인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의 해소라는 정치의 기본적인 역할을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 간의 관계는 이론적 그리고 경험적으로 더욱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정당지지자들 간의 극심한 정서적 양극화가 반드시 낮은 수준의 정치적 관용을 동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정당지지자가 갖는 정치적 정체성의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으로 인해 정치적 반대 집단 간의 부정적인 감정과 인식이 촉발되는 정서적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체성들이 어떠한 배열 방식을 보이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정치적 관용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정치적 정체성의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으로 인한 극심한 정서적 양극화 그 자체가 정치적 관용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양극화를 추동하는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배열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당파적(partisan)인가 혹은 인지적(cognitive)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서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본 연구가 정치적 관용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이념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의 배열 방식이 상대적으로 더욱 당파적인지 혹은 인지적인지 그 상호작용 효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 이론은 개인이 갖는 정체성의 정렬 및 강화가 정치적 행태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정치 갈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개인의 정치적 관용이라는 태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분석이 미비하다. 나아가 정치적 정체성의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은 정당지지자가 정당 지지와 자기이념인식, 그리고 여러 이슈에 관한 태도를 얼마나 구조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선호들의 더욱 광범위한 제약(constraints)을 나타낸다. 본 연구자는 두 변수의 배열 방식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선호 간의 제약의 성격 및 인지적 정교화의 상이한 수준을 함의하기 때문에 정치적 관용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앞서 정치적 관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정치적 관용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교화가 갖는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검토한 바 있다. 따라서 합리적 사고와 관련된 요소가 정치적 관용의 수준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정당지지자가 특정한 정치적 선호와 태도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을 인지적 숙의의 정도에 따라서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어떠한 배열 방식이 높은 수준의 인지적 정교화를 담보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당파적 정체성과 이념적 정체성이 강하게 정렬하여 당파적 정렬의 수준도 높고 쟁점 선호 일관성도 높은 정당지지자의 경우와, 당파적 정체성과 이념적 정체성이 강하게 정렬하여 당파적 정렬의 수준은 높지만 쟁점 선호 일관성은 낮은 정당지지자의 경우를 비교해 볼 수 있다. 특히 대북 지원에 대한 쟁점에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대미 정책에 대한 쟁점에서는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혹은 세금 정책에 대한 쟁점에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쟁점에서는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여 쟁점 선호 일관성이 낮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처럼 조작적(operational) 의미의 이념의 기준에서 두 쟁점 선호 간의 논리적인 정합성이 존재하는 경우임에도 해당 정당지지자가 교차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이때의 낮은 쟁점 선호 일관성은 해당 정당지지자가 스스로를 둘러싼 정치적 신호와 지식 및 정보들을 통해 쟁점에 대한 선호를 인지적으로 정교화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후자의 정당지지자는 어떠한 정당이 어떠한 이념을 상징적으로 표방하는지 알고 이에 알맞게 지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쟁점과 정책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응집력 있게 스스로의 선호를 조정하는 정도까지의 숙의 과정에는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선 예시와 관련하여 전자와 후자의 경우 동일하게 당파적 정렬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정서적 양극화라는 정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두 변수의 배열 방식에 따른 제약의 성격을 보았을 때 전자의 경우에는 후자의 경우보다 정당지지자가 특정한 정치적 선호를 구성하기까지 정당과 이념 그리고 쟁점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존재했을 것이고, 이러한 인지적 정교화의 과정은 개인이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해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 사고를 함축하기 때문에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치적 정체성의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심각한 정서적 양극화가 꼭 낮은 정치적 관용을 수반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데, 즉 대립하는 두 진영의 정당지지자들이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수준이 높아서 대립과 갈등을 겪지만, 이들이 스스로의 정체성과 선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인지적 정교화의 과정이 정치적 관용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당지지자의 높은 수준의 당파적 정렬과 낮은 수준의 쟁점 선호 일관성의 배열 방식보다, 높은 수준의 당파적 정렬과 높은 수준의 쟁점 선호 일관성의 배열 방식이 더욱 높은 수준의 인지적 정교화의 가능성을 함축하기 때문에 후자의 상호작용 효과가 정치적 관용에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은 특히 쟁점 선호 일관성이라는 변수가 갖는 양면적 성격에 기반한 것이다. 높은 수준의 쟁점 선호 일관성은 앞서 정서적 양극화에 관한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적 반대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킴으로써 정서적 양극화 및 정치적 관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념적으로 구조화(ideologically organized)된 개인을 암시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인지적 정교화의 가능성 또한 내포한다. 실제로 발다사리와 헬먼(2007)은 정치적으로 더욱 세련된 유권자들은 평균적으로 더욱 구조화된 정치적 신념 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의견은 더 높은 수준의 제약을 보이게 된다고 설명했으며, 쟁점 선호의 정렬의 역학은 당파적인 정치적 관심도(partisan political involvement)보다는 인지적 능력(cognitive capabilities)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Baldassarri and Gelman 2007). 나아가 코슬로우스키와 머피(2021) 또한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세련도가 더 높을수록 쟁점 선호 일관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내영(2022)은 한국의 정서적 양극화가 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을 약화시킬 만큼 심각한 수준인지를 단정하기에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어떠한 맥락에서 쟁점 선호 일관성이 정치적 관용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관용의 미시적 기초를 분석함에 있어서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정체성의 정렬과 쟁점 선호의 정렬의 상호작용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특히 높은 수준의 쟁점 선호 일관성은 정당지지자 스스로와 정치적 반대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유발함으로써 정서적 양극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동시에 인지적 정교화의 가능성을 통해 반대하지만 용납한다는 정치적 관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따라서 극심한 정서적 양극화가 반드시 낮은 정치적 관용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 가설을 검정하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가설

본 연구는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그리고 이념적 정체성의 정렬 수준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검증함으로써 “한국 정당지지자의 극심한 정서적 양극화는 반드시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낮은 정치적 관용 수준을 동반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특히, 2016 년 한국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이 이들의 정치적 관용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며, 강한 당파적 정체성이 존재하는 맥락에서 정당지지자의 높은 수준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 정치적 관용 수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독립변인을 정당지지자가 갖는 정치적 정체성의 정렬과 여러 쟁점에 관한 태도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쟁점 선호 일관성으로 구분하고, 2016 년 한국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독립변인과 정치적 관용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다. 연구 문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주가설 1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이 높을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낮을 것이다.

하위가설 1-1 2016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이 높을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심할 것이다.
하위가설 1-2 2016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이 높을수록 정치적 관용 수준이 낮을 것이다.

주가설 2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 높을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낮을 것이다.
하위가설 2-1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 높을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심할 것이다.
하위가설 2-2 2016 한국 정당지지자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 높을수록 정치적 관용이 낮을 것이다.

주가설 3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 수준이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은 쟁점 선호 일관성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

주가설 1 과 주가설 2 와 같이 정치적 양극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이 각각 높아질수록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따라서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이론적 시각을 반영한 주가설과 하위가설을 통해 각각의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이들의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주가설 3 과 같이 정당 지지자의 당파적 정렬이 약한 경우에는 쟁점 선호 일관성이 점점 높아질수록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낮아지는 반면, 당파적 정렬이 강한 경우에는 쟁점 선호 일관성이 점점 높아질수록 정서적 양극화는 존재하지만 정치적 관용의 수준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즉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이

정치적 관용에 갖는 상호작용 효과에 주목한 것인데, 이러한 예측은 우선 쟁점 선호 일관성이라는 변수가 갖는 양면적 성격에 기반한 것이다. 높은 수준의 쟁점 선호 일관성은 정당지지자가 갖는 강한 정치적 선호와 신념의 일환으로서 정치적 관용이라는 정치적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이념적으로 구조화(ideologically organized)되고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가 높은 개인을 암시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인지적 정교화의 가능성 또한 내포한다. 따라서 어떠한 맥락에서 쟁점 선호 일관성이 정치적 관용의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내영(2022)은 한국 정당지지자의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당파적 정체성의 강도와 정책 차이라는 두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의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에 있어서 당파적 정체성 이론과 정책차이 이론이 각각 설명력을 가지지만, 두 변수의 큰 상호작용 효과는 두 이론을 연결하고 종합하는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당파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이 함의하는 인지적 정교화의 수준에 따라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으며 따라서 이를 주가설 3으로 설정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제 2 절 분석 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가설 검정을 위해 본 연구는 2016 년 6 월부터 11 월까지 실시된 2016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다단계 지역 집락 확률 표집 방식으로 전국에서 모집된 만 18 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51 명이 참여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과 핵심 독립변수 중 하나인 당파적 정렬은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정당지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과 같이 양대 정당, 즉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일체감을 가지는 정당지지자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지지정당에 대한 감정온도가 상대 정당에 비해 작은 역선호의 특이 사례 또한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나아가 분석에 포함된 주요 변수에 대한 응답이 누락된 경우 또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 3 절 주요 변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양극화를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애착과 충성심 등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반면,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반감, 편견, 혐오 등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현상'으로 정의하였으며, 따라서 이를 측정함에 있어서 대다수 선행 연구들이 활용하는 주요 정당에 대한 느낌을 0-100 까지의 온도계의 온도로 표시한 감정온도계 설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자가 지지하는 자기 정당에 대해 느끼는 감정온도와 지지하지 않는 상대 정당에 대한 감정온도의 차이의 절댓값으로 한국의 양당 지지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관용을 '자신이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대상에게도 자유로운 의견 표현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려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정당지지자들 사이의 소통과 타협의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히 정치적 반대 집단 간의 대립의 맥락에서 이들이 갖는 당파적 정체성의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 간의 상호작용이 정치적 관용에 갖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정치적 관용을 측정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과 같이 응답자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least-liked) 혐오집단을 직접 설정하도록 하는 대신, 대다수 사람들에게 극단적으로 비춰지는 견해를 갖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문항을 선택하였다. 정치적 관용의 측정방법은 최근까지도 학술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의 정치적 관용, 특히 정치적 반대 집단의 권리에 대한 정치적 관용을 경험적으로 측정한 자료들은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연구의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한국 사회의 특정한 집단을 설정하기보다는 최대한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의견과 선호를 가진 개인 혹은 집단을 염두에 두고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문항을 활용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측정방식은 혐오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정치사회적 권리에 대한 인정 및 포용을 중심으로 정치적 관용의 수준을 측정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의 방식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 판단했다. 나아가 이러한 측정 방식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극단적으로 비춰지는 견해를 갖는 사람들에 대한 호감의 정도가 관용의 수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관용의 수준을 측정하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정치적 견해의 극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쟁점 선호 강도와 응답자의 정치적 관용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정치 쟁점 선호 강도만이 정치적 관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p<0.01$) 그 계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r=-.115$) 단순히 극단적인 정치적 견해를 갖는 해당 집단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한 것과는 구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치적 관용의 척도는 “대다수 사람들이 보기에 극단적이라고 생각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령 혁명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각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한 공개집회 개최”와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하는 책의 출판”에 대한 허용의 수준을 표시한 2 개의 설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1 점)”, “아마도 허용되어야 한다(2 점)”, “아마도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3 점)”, “당연히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4 점)” 그리고 “선택할 수 없음”의 5 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되었으며. 2 개의 문항 모두 높은 응답 점수가 높은 정치적 불관용 수준을 의미하게 되어 역코딩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문항들이 서로 얼마나 동질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를 기준으로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정치적 관용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문항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0.8531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가 정치적 관용을 측정하기에 충분히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척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앞선 선행 연구 검토에서 확인한 것처럼 최근 국내외 정치 양극화 연구들의 다수는 정당지지자들의 당파적 정체성과 이념적 정체성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당파적 정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며 결국 낮은 정치적 관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정당 호감도를 묻는 설문항과 자기이념인식을 묻는 설문항 간의 차이의 절댓값을 역코딩하여 측정되는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정체성 정렬(identity alignment)의 척도를 당파적 정렬의 척도로 설정하였다(Mason 2015). 더불어 당파적 정체성과 이념적 정체성의 '정렬'과 함께 각각의 '강도(intensity)'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당 호감도를 묻는 설문항을 활용하여 당파적 정체성의 강도 또한 조작화 하였다.

나아가 기존의 연구들은 정당지지자들의 쟁점 선호 일관성 또한 정치적 반대 집단 간의 차이를 발생시킴으로써 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결국 낮은 정치적 관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암시한다. 본 연구는 Bougher(2017) 및 장승진·서정규(2019)의 방식을 참고하여 한국 정당지지자들의 쟁점 선호 일관성을 조작화 함으로써 정당지지자가 다양한 쟁점에 걸쳐 얼마나 일관적인 쟁점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미동맹, 국가보안법, 개성공단 정상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공기업 민영화, 학교 내 체벌, 대체복무제, 사형제 등의 정치, 경제, 사회의 3 개의 영역별 총 10 개 쟁점에 대한

응답자의 선호를 묻는 설문항을 활용하여 각 쟁점 선호에 대해 그 강도와 무관하게 진보적인 입장에 −1 의 값을 부여하고 보수적인 입장에 1 의 값을 부여하여 합산하였다. 예를 들어 두 쟁점에 대해 일관적으로 보수(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2(−2)의 값을 가지게 되며, 만일 두 쟁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0 의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10 개 쟁점에 대한 선호를 모두 합산하면 −10 부터 10 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며, 최종적으로 이 값의 절대값을 취함으로써 0 부터 10 까지의 척도를 도출하였다. 10 의 값을 가진 응답자는 10 개 쟁점 모두에 대해 일관적으로 보수 혹은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0 의 값을 가진 응답자는 5 개의 쟁점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그리고 다른 6 개의 쟁점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가장 일관되지 않은 쟁점 선호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여러 쟁점 선호 간의 '정렬'과 함께 '강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쟁점 선호에 대해 그 방향과 무관하게 약한 선호에 1 의 값을 부여하고 강한 선호에 2 의 값을 부여하여 10 개 쟁점에 걸쳐 평균값을 계산하여 쟁점 선호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두 부류의 독립변수들 외에도 종속변수인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응답자의 연령, 성별, 소득 및 교육 수준 등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수와 정치 관심도, 더불어민주당 지지, 이념 성향, 타인에 대한 신뢰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제 4 절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이 정서적 양극화 및 정치적 관용 수준에 갖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회귀분석에 앞서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문항의 신뢰도 분석,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구체적인 기법 및 분석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인인 정치적 관용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들의 당파적 정체성의 강도와 정렬, 쟁점 선호의 강도와 일관성,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 및 통제변인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 대상인 한국 정당 지지자들이 주요 변인에 대해 갖는 특징을 파악하였다.

셋째,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 및 통제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지수(VIF)의 값을 확인하였다.

넷째, 다른 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인 당파적 정체성의 강도와 정렬 그리고 쟁점 선호의 강도와 일관성이 종속변인인 정서적 양극화 및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제 4 장 경험적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 일관성이라는 정치적 성향 및 선호의 정서적 양극화 및 정치적 관용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정체성의 정렬이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주가설 1 로 설정하였으며, 나아가 쟁점 선호 일관성이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주가설 2 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정체성의 정렬이 정치적 관용에 갖는 영향에 있어서 쟁점 선호 일관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주가설 3 으로 설정하였다. 2016 년 한국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변인들에 대하여 실시한 기술통계 분석, 변인 간 상관 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1 절 기초 통계 분석

1. 측정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최종 분석이 된 2016 년 한국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지지자 532 명의 측정변인들에 대한 응답의 전반적인 분포와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6 한국의 양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정렬 및 쟁점 선호 일관성을 비롯한 측정변인들에 대해 갖는 특성을 함께 기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독립변수인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에 대한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응답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에 대한 독립변수로서 당파적 정체성 이론에 기초한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정렬과 이슈·정책 이론에 기초한 쟁점 선호 일관성에 대한 기술통계 값은 다음 <표 1>와 같다.

<표 1>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특성(N=532)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당파적 정렬	4.19	0.852	1	5
쟁점 선호 일관성	2.54	2.101	0	10
정치 쟁점 선호 일관성	1.37	1.009	0	3
경제 쟁점 선호 일관성	1.74	1.291	0	4
사회 쟁점 선호 일관성	1.43	1.001	0	3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정렬 수준의 평균은 4.19(SD=.852), 쟁점 선호 일관성의 평균은 2.54(SD=2.101)로 나타났다. 또한 각 영역별로 측정한 쟁점 선호 일관성의 경우, 정치 영역의 쟁점 선호 일관성의 평균은 1.37(SD=1.009), 경제 영역의 쟁점 선호 일관성의 평균은 1.74(SD=1.291), 그리고 사회 영역의 쟁점 선호 일관성의 평균은 1.43(SD=1.001)로 나타났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정렬의 수준이 이들이 갖는 쟁점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보다 비교적 높다는 것이다. 즉 정당지지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갖는 호감도와 스스로의 이념 성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의 여부가 갖는 상관관계가, 이들이 여러 쟁점에 대해 갖는 태도 간의 상관관계보다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정치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 일관성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의 쟁점 선호와 당파성 간의

상관관계가 쟁점 태도 간의 상관관계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 수준과 쟁점 선호 일관성 수준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이들의 이념 성향이 조작적 의미의 이념 즉 쟁점 태도 간의 실질적인 제약과 응집성을 함의하는 이념이라기 보다는 상징적 의미의 이념 즉 정치적 정체성으로서의 이념의 특성이 더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영역별 쟁점 선호 일관성의 척도를 보면 사회 영역, 정치 영역, 그리고 경제 영역의 순서로 쟁점 선호 일관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정당지지자들이 사회 영역과 관련한 쟁점에서 다른 영역 보다 비교적 일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종속변수인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정서적 양극화 수준과 정치적 관용 수준에 대한 기술통계 값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의 특성(N=532)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정서적 양극화	1.42	1.043	0	4
정치적 관용	4.82	1.833	2	8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은 5 점 척도로 측정되는 정서적 양극화에서 평균적으로 1.42 점을 얻어(SD=1.043),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갖는 호감도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갖는 호감도의 차이가 매우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 점 척도로 측정되는 정치적 관용에서 평균적으로 4.82 점을 얻어(SD=1.833),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 성향을 지닌 집단에 대해 다소 낮은 수준의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정당과 지지하지 않은 정당에 갖는 호감도의 차이는 비교적 크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반대하는 집단에 대해

갖는 정치적 불관용의 수준 또한 다소 존재한 것으로 말미암아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서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각각 상이한 요인에 의해 달라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파적 정체성 및 쟁점 선호의 강도와 기타 통제 변인의 수준에 대한 기술통계 값은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의 강도 및 기타 통제변인의 특성(N=532)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당파적 정체성 강도	3.58	0.770	1	5
정치 쟁점 선호 강도	0.92	0.530	0	2
경제 쟁점 선호 강도	0.98	0.480	0	2
사회 쟁점 선호 강도	0.98	0.512	0	2
이념 성향	2.99	0.963	1	5
정치 관심도	2.74	0.932	1	5
타인에 대한 신뢰	2.40	0.768	1	4
더불어민주당 지지	0.43	0.496	0	1
연령	50.91	18.235	18	99
성별(여성)	0.53	0.498	0	1
교육 수준	1.55	0.615	1	3
소득 수준	4.68	2.923	1	11

첫째,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호감도의 강도로서 측정되는 당파적 정체성의 강도의 평균은 3.58 로(SD=0.770),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정체성의 강도는 앞서 살펴본 쟁점 선호 일관성의 수준 보다는 평균적으로 높지만 당파적 정렬의 수준보다는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의 수준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측정된 이유 중 하나는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호감도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영역별 쟁점 선호 강도의 척도를 보면 경제 영역 쟁점 선호의 강도의 평균은 0.98 이고(SD=0.48) 사회 영역 쟁점 선호의 강도의 평균 또한 0.98 로(SD=0.512)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정치 영역에서 쟁점 선호 강도의 평균은 0.92 로(SD=0.53) 나타났다. 셋째, 이념 성향의 경우 평균은 2.99 로(SD=0.963)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은 평균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에 약간 치우친 중도적인 정치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치 관심도의 경우 평균은 2.74 로(SD=0.932), 양당 지지자들의 정치적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타인에 대한 신뢰의 경우 평균은 2.40 로(SD=0.768),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은 타인에 대한 신뢰에 크게 관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변인들에 대한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활용한 독립변인 및 통제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제변인을 포함한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의 크기는 최대 .586 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다중회귀분석 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각 변인의 분산팽창인자(VIF)가 모두 2.5 이하의 수치를 보임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 중 눈 여겨 볼 만한 몇몇 수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상관계수 0.4 이상이면서 $p<.001$ 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쟁점 선호 일관성과 정치 쟁점 선호 일관성($r=.425$) 간, 정치 쟁점 선호 일관성과 정치 쟁점 선호 강도 간($r=.538$), 사회 쟁점 선호 일관성과 사회 쟁점 선호 강도 간($r=.435$), 정치 쟁점 선호 강도와 경제 쟁점 선호 강도 간($r=.509$), 정치 쟁점 선호 강도와 사회 쟁점 선호 강도 간($r=.564$), 경제 쟁점 선호 강도와 사회 쟁점 선호 강도 간($r=.586$), 이념 성향과 더불어민주당 지지 간($r=-.419$), 더불어민주당 지지와 연령 간($r=-.443$), 그리고 연령과 교육 간($r=-.531$)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정치적 관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의 영향요인

본 연구의 주가설 1 은 당파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이 높을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낮을 것이다”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하위가설 1-1 은 정서적 양극화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이 높을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심할 것이다”로 설정하고, 하위가설 1-2 는 정치적 관용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이 높을수록 정치적 관용 수준이 낮을 것이다”로 설정하였다. 당파성 이론에서 제시하는 주요 독립변인인 당파적 정렬과 당파적 정체성의 강도 그리고 기타 통제변인들을 일괄 투입 방식(enter method)으로 투입하여 정서적 양극화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정서적 양극화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당파성 가설 모형

	종속변수: 정서적 양극화(N=532)				
	당파성 가설 모형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β	t	유의확률
당파적 정렬	−0.102	0.039	−0.083	−2.57	0.010*
당파적 정체성 강도	0.856	0.043	0.633	19.72	<.001***
이념성향	0.043	0.038	0.04	1.13	0.258
정치 관심도	0.173	0.036	0.155	4.80	<.001***
타인에 대한 신뢰	−0.114	0.042	−0.084	−2.70	0.007**
더불어민주당 지지	0.708	0.078	0.337	8.97	<.001***
연령	0.005	0.002	0.088	2.15	0.032*
성별(여성)	0.084	0.066	0.04	1.28	0.201
교육 수준	0.024	0.063	0.014	0.39	0.698
소득 수준	0.025	0.012	0.071	2.11	0.035*
상수	−2.318	0.333		−6.94	<.001***

R제곱	수정된 R 제곱
0.512	0.503

*p<.05, **p<0.01, ***p<.001

당파성 이론에 기초한 본 회귀모형은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통계량인 분산팽창인자(VIF)를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의 5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R 제곱의 값은 0.503 이다.

회귀분석의 검증 결과,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은 당파적 정렬(B=−0.102,

p=0.01), 당파성의 강도(B=0.856, p<.001), 정치 관심도(B=0.173, p<.001), 타인에 대한 신뢰(B=−0.114, p=0.007), 더불어민주당 지지(B=0.708, p<.001), 연령(B=0.005, p=0.032) 그리고 소득(B=0.025, p=0.035)의 7 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정렬 즉 당파적 정체성과 이념적 정체성의 상관관계가 증가할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하위가설 1-1 의 예상과는 다르게 양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정렬은 오히려 정서적 양극화의 부(−)의 영향을 미쳤다. 즉 양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정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서적 양극화의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표준화 회귀계수 B 의 값으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정체성의 강도 즉 정당호감도가 1 점 증가할 때 정서적 양극화는 0.856 점 높게 나타나며, 정치 관심도가 1 점 증가할 때 정서적 양극화는 0.173 점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일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0.708 점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과 소득이 1 단위 높아질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각각 0.005 점, 0.025 점 증가하였다.

반면 당파적 정렬과 타인에 대한 신뢰는 정서적 양극화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당파적 정렬 수준이 1 점 높을수록 정서적 양극화는 0.102 점 낮아졌으며 또한 타인에 대한 신뢰가 1 점 높아질수록 정서적 양극화는 0.114 점 낮아졌다. 특히 하위가설 1-1 의 주요 독립변수인 당파적 정렬은 기술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최솟값 1, 최댓값 5 이므로 당파적 정렬의 수준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가장 낮은 응답자에 비해 정서적 양극화가 0.408 만큼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당파성 가설 모형에 의하면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7 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당파적 정체성 강도(β=0.633), 더불어민주당 지지(β=0.337), 정치

관심도(β=0.155), 연령(β=0.088), 타인에 대한 신뢰(β=−0.084), 당파적 정렬(β=−0.083), 그리고 소득 수준(β=0.071)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한편 당파성 이론에서 제시하는 주요 독립변인인 당파적 정렬과 당파적 정체성의 강도 그리고 기타 통제변인들을 일괄 투입 방식(enter method)으로 투입하여 정치적 관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5 >와 같다.

<표 5 > 정치적 관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당파성 가설 모형

	종속변수: 정치적 관용(N=532)				
	당파성 가설 모형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β	t	유의확률
당파적 정렬	**−0.182**	0.091	**−0.084**	−1.99	0.047*
당파적 정체성 강도	0.127	0.099	0.053	1.27	0.203
이념성향	−0.04	0.088	−0.021	−0.46	0.646
정치 관심도	0.06	0.083	0.03	0.73	0.467
타인에 대한 신뢰	0.091	0.097	0.038	0.94	0.347
더불어민주당 지지	**0.644**	0.181	**0.174**	3.55	<.001***
연령	**−0.027**	0.005	**−0.269**	−5.03	<.001***
성별(여성)	0.172	0.152	0.047	1.13	0.257
교육 수준	0.159	0.146	0.053	1.09	0.278
소득 수준	0.0001	0.027	0.0002	0.01	0.995
상수	**5.629**	0.767		7.34	<.001***

R제곱	수정된 R 제곱
0.167	0.151

*p<.05, **p<0.01, ***p<.001

당파성 이론에 기초한 본 회귀모형은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통계량인 분산팽창인자(VIF)를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정치적 관용의 16.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R 제곱의 값은 0.151 이다.

회귀분석의 검증 결과,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은 당파적 정렬(B=−0.182, p=0.047), 더불어민주당 지지(B=0.644, p<.001), 그리고 연령(B=−0.027, p<.001)의 3 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정렬 즉 당파적 정체성과 이념적 정체성의 상관관계가 증가할수록 정치적 관용이 낮아질 것이라는 하위가설 1−2 의 예상대로 양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정렬은 정치적 관용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즉 양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정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의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표준화 회귀계수 B 의 값으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일수록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0.644 점 높게 나타난 반면, 당파적 정렬과 연령은 정치적 관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당파적 정렬 수준이 1 점 높을수록 정치적 관용은 0.182 점 낮아졌으며 또한 연령이 1 단위 증가할수록 정치적 관용은 0.027 점 낮아졌다. 특히 하위가설 1−2 의 주요 독립변수인 당파적 정렬은 기술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최솟값 1, 최댓값 5 이므로 당파적 정렬의 수준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가장 낮은 응답자에 비해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0.728 만큼 감소했다.

당파성 가설 모형에 의하면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3 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연령 (β=−0.269), 더불어민주당 지지(β=0.174), 그리고 당파적 정렬(β=−0.084)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가설 1 은 당파성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이 높을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낮을 것이다"였다. 당파성 가설 모형을 바탕으로 각각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을 종속변수로 한 하위가설 1-1 과 1-2 를 검증한 결과,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정렬은 정서적 양극화 및 정치적 관용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정서적 양극화는 완화시킨 반면 정치적 불관용의 수준은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요컨대 당파성 가설 모형을 통해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이 높을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낮을 것이다"의 주가설 1 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는데, 정서적 양극화를 종속변수로 하는 하위가설 1-1 은 기각되었으나 정치적 관용을 종속변수로 하는 하위가설 1-2 은 채택되었다.

주가설 1 검증 과정에서 유의미했던 것은 첫째,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갖는 호감도가 강해질 때 정치적 반대 집단과의 정서적 양극화의 수준은 악화될 수 있지만 정치적 관용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것과 둘째,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관용 수준에 있어서 당파적 정렬 즉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호감도와 자기이념인식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서, 당파성 이론에 의하면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파적 정체성의 강도와 정렬이 정서적 양극화 및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왜 서로 차이를 보이는가를 탐색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본 연구의 주가설 2 는 쟁점·정책 이론을 바탕으로 한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 높을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낮을 것이다"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하위가설 2-1 은 정서적 양극화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 높을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심할 것이다"로 설정하고, 하위가설 2-2 는

정치적 관용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 높을수록 정치적 관용 수준이 낮을 것이다”로 설정하였다. 쟁점·정책 이론에서 제시하는 주요 독립변인인 쟁점 선호 일관성과 쟁점 선호의 강도 및 기타 통제변인들을 일괄 투입 방식(enter method)으로 투입하여 정서적 양극화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6>와 같다.

<표 6> 정서적 양극화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쟁점·정책 가설 모형

	종속변수: 정서적 양극화(N=532)				
	쟁점·정책 가설 모형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β	t	유의확률
쟁점 선호 일관성	**0.067**	0.024	**0.135**	2.72	0.007**
정치 쟁점 선호 일관성	−0.049	0.053	−0.048	−0.94	0.347
경제 쟁점 선호 일관성	0.051	0.037	0.063	1.37	0.171
사회 쟁점 선호 일관성	0.029	0.048	0.028	0.62	0.538
정치 쟁점 선호 강도	0.18	0.117	0.091	1.53	0.126
경제 쟁점 선호 강도	−0.021	0.121	−0.01	−0.18	0.857
사회 쟁점 선호 강도	0.069	0.116	0.034	0.59	0.552
이념 성향	−0.051	0.048	−0.047	−1.06	0.289
정치 관심도	**0.171**	0.049	**0.153**	3.46	0.001**
타인에 대한 신뢰	**−0.11**	0.055	**−0.081**	−1.99	0.047*
더불어민주당 지지	**0.545**	0.105	**0.259**	5.18	<.001***
연령	**0.013**	0.003	**0.229**	4.26	<.001***
성별(여성)	0.109	0.087	0.052	1.25	0.212
교육 수준	0.014	0.084	0.008	0.17	0.867
소득 수준	0.007	0,015	0.02	0.47	0.640
상수	−0.101	0.369		−0.27	0.784

R제곱	수정된 R 제곱
0.186	0.163

*p<.05, **p<0.01, ***p<.001

쟁점·정책 이론에 기초한 본 회귀모형은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통계량인 분산팽창인자(VIF)를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의 18.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R 제곱의 값은 0.163 이다.

회귀분석의 검증 결과,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은 쟁점 선호 일관성(B=−0.102, p=0.01), 정치 관심도(B=0.856, p<.001), 타인에 대한 신뢰(B=0.173, p<.001), 더불어민주당 지지(B=0.708, p<.001), 연령(B=0.005)의 5 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 높을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심할 것이라는 하위가설 2−1 의 예상대로 양당 지지자들의 쟁점 선호 일관성은 정서적 양극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양당 지지자들의 쟁점 선호 일관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서적 양극화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표준화 회귀계수 B 의 값으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 1 점 증가할 때 정서적 양극화는 0.067 점 높게 나타나며, 정치 관심도가 1 점 증가할 때 정서적 양극화는 0.171 점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일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0.545 점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1 단위 높아질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0.013 점 증가하였다. 특히 하위가설 2−1 의 주요 독립변수인 쟁점 선호 일관성은 기술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최솟값 0, 최댓값 10 이므로 쟁점 선호 일관성의 수준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가장 낮은 응답자에 비해 정서적 양극화가 0.67 점 감소했다.

반면 타인에 대한 신뢰는 정서적 양극화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타인에 대한 신뢰가 1 점 높아질수록 정서적 양극화는 0.11 점 낮아졌다.

쟁점·정책 가설 모형에 의하면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5 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더불어민주당 지지(β=0.259), 연령(β=0.229), 정치 관심도(β=0.171), 쟁점 선호 일관성(β=0.135),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β=−0.081)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나아가 쟁점·정책 이론에서 제시하는 주요 독립변인인 쟁점 선호 일관성과 쟁점 선호의 강도 및 기타 통제변인들을 일괄 투입 방식(enter method)으로 투입하여 정치적 관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7>와 같다.

<표 7> 정치적 관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쟁점·정책 가설 모형

	종속변수: 정치적 관용(N=532)				
	쟁점·정책 가설 모형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β	t	유의확률
쟁점 선호 일관성	**0.091**	0.043	**0.105**	2.10	0.036*
정치 쟁점 선호 일관성	−0.153	0.093	−0.084	−1.64	0.102
경제 쟁점 선호 일관성	0.039	0.065	0.027	0.60	0.546
사회 쟁점 선호 일관성	**−0.17**	0.084	**−0.093**	−2.01	0.045*
정치 쟁점 선호 강도	−0.132	0.207	−0.038	−0.64	0.523
경제 쟁점 선호 강도	0.157	0.214	0.041	0.73	0.463
사회 쟁점 선호 강도	−0.076	0.206	−0.021	−0.37	0.712
이념 성향	−0.086	0.084	−0.045	−1.02	0.310
정치 관심도	0.084	0.087	0.043	0.97	0.334
타인에 대한 신뢰	0.086	0.098	0.036	0.88	0.377
더불어민주당 지지	**0.441**	0.185	**0.119**	2.37	0.018*
연령	**−0.024**	0.005	**−0.239**	−4.43	<.001***
성별(여성)	0.125	0.154	0.034	0.81	0.419
교육 수준	0.113	0.149	0.038	0.76	0.451
소득 수준	−0.004	0,028	−0.007	−0.17	0.868
상수	**5.657**	0.653		8.66	<.001***

R제곱	수정된 R 제곱
0.178	0.154

*p<.05, **p<0.01, ***p<.001

쟁점·정책 이론에 기초한 본 회귀모형은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통계량인 분산팽창인자(VIF)를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정치적 관용의 17.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R 제곱의 값은 0.154 이다.

회귀분석의 검증 결과,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은 쟁점 선호 일관성(B=0.091, p=0.036), 사회 쟁점 선호 일관성(B=−0.17, p=0.045), 더불어민주당 지지(B=0.441, p=0.018), 그리고 연령(B=−0.02, p<.001)의 4 개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당 지지자들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 증가할수록 정치적 관용이 낮아질 것이라는 하위가설 2-2 의 예상과 달리 쟁점 선호 일관성 정치적 관용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즉 양당 지지자들의 쟁점 선호 일관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의 수준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표준화 회귀계수 B 의 값으로 볼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 1 점 증가할수록 정치적 관용은 0.091 점 증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일수록 정치적 관용이 0.441 점 증가했다. 특히 하위가설 2-2 의 주요 독립변수인 쟁점 선호 일관성은 기술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최솟값 0, 최댓값 10 이므로 쟁점 선호 일관성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가장 낮은 응답자에 비해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0.91 만큼 높았다.

반면, 사회 쟁점 선호 일관성과 연령은 정치적 관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 쟁점 선호 일관성이 1 점 높을수록 정치적 관용은 0.17 점 낮아졌으며 또한 연령이 1 단위 증가할수록 정치적 관용은 0.247 점 낮아졌다. 특히 하위가설 2-2 의 주요 독립변수인 사회 쟁점 선호 일관성은 기술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최솟값 0, 최댓값 3 이므로 사회 쟁점 선호 일관성의 수준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가장 낮은 응답자에 비해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0.51 만큼 감소했다.

쟁점·정책 가설 모형에 의하면 2016 년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3 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연령(β=−0.239), 더불어민주당 지지(β=0.119), 쟁점 선호 일관성(β=0.105), 그리고 사회 쟁점 선호 일관성(β=−0.093)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가설 2 는 쟁점·정책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 높을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낮을 것이다”였다. 쟁점·정책 모형을 바탕으로 각각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을 종속변수로 한 하위가설 2−1 과 2−2 를 검증한 결과,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쟁점 선호 일관성은 정서적 양극화 및 정치적 관용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정서적 양극화는 심화시킨 반면 정치적 관용의 수준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한국 정당지지자의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의 모든 쟁점에 대해 측정한 쟁점 선호 일관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반면, 사회 영역에 포함된 쟁점 간의 일관성만을 측정한 사회 쟁점 선호 일관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 관용의 수준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정당지지자가 각 쟁점에 대해 얼마나 일관적인 태도를 갖는지가 정치적 관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관성을 보이는 쟁점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정치적 관용에 상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확인되었다.

요컨대 쟁점·정책 모형을 통해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 높을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낮을 것이다”의 주가설 2 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는데, 정서적 양극화를 종속변수로 하는 하위가설 2−1 은

채택되었으나 정치적 관용을 종속변수로 하는 하위가설 2-2 는 부분적으로 기각되었다.

주가설 2 검증 과정에서 유의미했던 것은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가 여러 쟁점에 대해 갖는 태도의 일관성이 강해질 때 정치적 반대 집단과의 정서적 양극화의 수준은 악화될 수 있지만 정치적 관용의 수준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과 둘째,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관용 수준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영역 내 쟁점에 대한 태도를 모두 포함해서 측정한 쟁점 선호 일관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 영역 내 쟁점에 대한 태도만을 두고 측정한 태도 일관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정서적 양극화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는 변수로 분석되었던 쟁점 선호의 강도는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양극화 및 정치적 관용 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쟁점·정책 이론에 의하면 쟁점 선호 일관성과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되는 쟁점 선호 강도가 정서적 양극화 및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왜 서로 차이를 보이는가를 탐색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당파적 정렬과 정치적 관용 간의 관계에서 쟁점 선호 일관성의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의 주가설 3 은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 수준이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은 쟁점 선호 일관성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이다. 앞서 당파성 이론과 쟁점·정책 이론의 각각의 가설 모형을 바탕으로 정치적 관용에 대한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설명력을 검증한 결과, 당파적 정렬은 부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쟁점 선호 일관성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문제 의식과 유사하게 한국 정당지지자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라는 변수는 정치적 반대 집단 간의 정서적 양극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반대함에도 용인한다’의 의미를 함축하는 정치적 관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쟁점 선호 일관성이 정치적 관용의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탐색하기 위해 종합 모형으로 앞의 당파성 가설 모형과 쟁점·정책 모형의 독립변수인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 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또한 두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다른 통제 변수들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의 수준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쟁점 선호 일관성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의 인용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조절효과 분석 시에는 상호작용에 포함된 변수인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에 대하여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한 값을 활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변인들을 일괄 투입 방식(enter method)으로 투입하여 정치적 관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 <표 8>와 같다.

<표 8>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정치적 관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합 모형

	종속변수: 정치적 관용(N=532)				
	종합 모형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표준화 회귀계수 β	t	유의확률
당파적 정렬	**−0.208**	0.091	**−0.096**	−2.26	0.024*
쟁점 선호 일관성	**0.091**	0.043	**0.104**	2.10	0.036*
당파적 정렬 x 쟁점 선호 일관성	0.053	0.042	0.051	1.26	0.207
정치 쟁점 선호 일관성	−0.158	0.093	−0.087	−1.70	0.091
경제 쟁점 선호 일관성	0.028	0.066	0.02	0.44	0.662
사회 쟁점 선호 일관성	**−0.167**	0.084	**−0.091**	−1.98	0.048*
당파적 정체성의 강도	0.1	0.099	0.042	1.00	0.316
정치 쟁점 선호 강도	−0.16	0.207	−0.046	−0.77	0.440
경제 쟁점 선호 강도	0.167	0.214	0.044	0.78	0.434
사회 쟁점 선호 강도	−0.081	0.206	−0.022	−0.39	0.693
이념 성향	−0.031	0.088	−0.016	−0.35	0.725
정치 관심도	0.085	0.087	0.043	0.98	0.328
타인에 대한 신뢰	0.087	0.097	0.036	0.90	0.371
더불어민주당 지지	**0.509**	0.188	**0.138**	2.71	0.007**
연령	**−0.027**	0.005	**−0.276**	−4.92	<.001***
성별(여성)	0.139	0.154	0.037	0.90	0.368
교육 수준	0.086	0.149	0.029	0.58	0.564
소득 수준	−0.006	0,028	−0.009	−0.22	0.826
상수	**5.604**	0.759		7.38	<.001***

R제곱	수정된 R 제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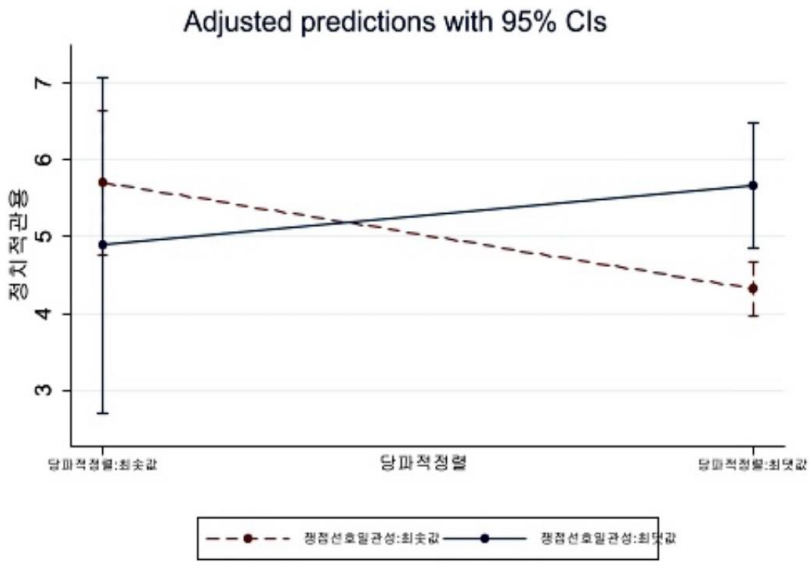
0.1901	0.1617

*p<.05, **p<0.01, ***p<.001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은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의 19.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R 제곱의 값은 0.1617 이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투입한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항이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53, p=.207). 따라서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은 쟁점 선호 일관성에 의해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 수준이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은 쟁점 선호 일관성에 의해 달라질 것이라는 주가설 3 은 채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관용과 당파적 정렬 간의 관계에서 쟁점 선호 일관성의 조절효과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 당파적 정렬과 정치적 관용 간 관계에서 쟁점 선호 일관성의 조절효과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위 <그림 1>의 그래프를 통해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이 최솟값일 경우와 최댓값일 경우에 가장 약한 쟁점 선호 일관성을 가진 정당지지자와 가장 강한 쟁점 선호 일관성을 가진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관용 수준의 95% 신뢰구간에서의 예측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그래프를 보면 우선 제일 왼쪽 당파적 정렬의 수준이 최솟값일 경우 즉 당파적 정렬의 수준이 비교적 낮을 경우에는 강한 쟁점 선호 일관성을 갖는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관용은 약한 쟁점 선호 일관성을 갖는 정당지지자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점차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의 수준이 최솟값에서 최댓값으로 이동할수록, 즉 당파적 정렬의 수준이 점점 강해질수록 낮은 수준의 쟁점 선호 일관성을 갖는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관용의 수준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높은 수준의 쟁점 선호 일관성을 갖는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관용의 수준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위 그래프에서 나타난 정치적 관용의 예측값을 보면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오히려 쟁점 선호 일관성이 높은 것이 정치적 관용 수준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의 수준이 강한 맥락에서는 당파적 정렬이 정치적 관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높은 수준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 일부 유의하게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앞서 당파성 모형과 쟁점·정책 모형을 바탕으로 한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관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당파적 정렬의 부정적인 효과와 쟁점 선호 일관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가 다양한 정치적 쟁점에 갖는 태도의 높은 수준의 일관성은, 특히 이들의 당파적 정렬이 강한 맥락에서, 즉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호감도와 자기이념인식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맥락에서 당파적 정렬이 정치적 관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항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한국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각각 별개의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선행 연구들이 당파적 정체성과 관련한 변수와 보다 인지적인 함의를 내포하는 쟁점·정책과 관련한 변수들이 유의미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제한적이지만 그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그리고 이념적 정체성의 정렬 수준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관용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을 검증함으로써 “한국 정당지지자의 극심한 정서적 양극화는 반드시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낮은 정치적 관용을 동반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다. 특히, 2016 년 한국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이 이들의 정치적 관용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나아가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선호의 미시적 기반에 강한 당파적 정체성이 존재하는 맥락에서는 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던 높은 수준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 정치적 관용 수준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이 연구의 주요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당파성 가설 모형을 바탕으로 각각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을 종속변수로 한 하위가설 1-1 과 1-2 를 검증한 결과,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당파적 정렬은 정서적 양극화 및 정치적 관용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정서적 양극화는 완화시킨 반면 정치적 불관용의 수준은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당파성 가설 모형을 통해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이 높을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낮을 것이다”의 주가설 1 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갖는 호감도가 강해질 때 정치적 반대 집단과의 정서적 양극화의 수준은 악화될 수 있지만 정치적 관용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것과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관용 수준에 있어서 당파적 정렬 즉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호감도와 자기이념인식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정치적 관용의 수준이 감소했다는 점을 밝혔다. 정당지지자가 갖는 당파적 정체성의 강도와 정렬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에서 주목한 정당지지자의 당파적인 정체성이 정치적 관용에 갖는 부정적인 영향은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쟁점·정책 모형을 바탕으로 각각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을 종속변수로 한 하위가설 2-1 과 2-2 를 검증한 결과, 한국 양당 지지자들의 쟁점 선호 일관성은 정서적 양극화 및 정치적 관용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정서적 양극화는 심화시킨 반면 정치적 관용의 수준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쟁점·정책 모형을 통해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 높을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정치적 관용 수준이 낮을 것이다”의 주가설 2 가 검증되었다. 특히 2016 년 한국 정당지지자가 여러 쟁점에 대해 갖는 태도의 일관성이 강해질 때 정치적 반대 집단과의 정서적 양극화의 수준은 악화될 수 있지만 정치적 관용의 수준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본 연구의 문제 의식과 유사하게 한국 정당지지자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라는 변수는 정치적 반대 집단 간의 정서적 양극화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반대함에도 용인한다’의 의미를 함축하는 정치적 관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당파성 모형과 쟁점·모형의 독립 변수와 이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종합모형을 바탕으로 한국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의 수준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쟁점 선호 일관성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지 여부를 다루는 주가설 3 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의 상호작용항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주가설 3 은 기각되었으며, 따라서 한국 정당지지자의 정치적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당파적 정렬과 쟁점 선호 일관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각각 별개의 경로를 통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절효과 그래프를 통해서 정당지지자의 당파적 정렬의 수준이 매우 강한 맥락에서는 당파적 정렬이 정치적 관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높은 수준의 쟁점 선호 일관성이 일부 유의하게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의 선행 연구들이 당파적 정체성과 관련한 변수와 보다 인지적인 함의를 내포하는 쟁점·정책과 관련한 변수들이 유의미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 정당지지자들의 당파적 및 이념적 정체성과 쟁점 선호의 상호 제약 수준이 정서적 양극화 및 정치적 불관용에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 분석함을 통해서 한국 정당지지자의 정서적 양극화와 정치적 관용 간의 학문적 공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정치적 관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과 영향요인을 다루는 경험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정당지지자들이 갖는 당파적인 정체성과 보다 인지적인 숙의를 요하는 쟁점 및 정책과 관련한 선호가 갖는 차별적인 정치적 효과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 양극화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며 이에 더하여 한국 정당지지자들이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해서 갖는 정치적 관용의 미시적 기초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가상준(2015). 한국사회 정치관용에 대한 연구: 낮은 관용, 깊은 갈등. 한국정당학회보, 14(1), 129-155.

가상준·윤종빈·유성진(2010). 한국사회 정치관용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OUGHTOPIA, 25(3), 273-298.

길정아(2019). 한국 유권자의 당파적 편향: 양극화의 미시적 토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용환(1997). 관용과 열린사회. 서울: 철학과현실사

나태준(2004).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한국행정연구원

박세나(2022). 고등학생의 정치적 관용과 비판적 사고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성진(2019). 정치환경의 변화와 관용: 사회안전과 개인적 정향 그리고 민주주의. 분쟁해결연구, 17(3), 35-63.

유성진·윤종빈·가상준·조진만(2011). 한국 사회 정치적 관용에 관한 경험적 분석: 혐오집단에 대한 정치사회적 권리의 보장과 제약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17(2), 69-90.

윤성이(2006).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실체와 변화. 국가전략, 12(4), 37-59.

이내영(2011).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 국민들의 양극화인가, 정치엘리트들의 양극화인가? 한국정당학회보, 10(2), 251-287.

윤종빈·조진만·가상준·유성준(2011). 한국사회 관용의 수준과 혐오집단. 세계지역연구논총, 29(3), 161-185.

임재형·김재신(2015). 한국사회의 혐오집단과 관용에 대한 경험적 분석. OUGHTOPIA, 30(2), 273-298.

장승진·서정규(2019). 당파적 양극화의 이원적 구조: 정치적 정체성, 정책선호, 그리고 정치적 세련도. 한국정당학회보, 18(3), 5-29.

정동준(2016). 2016 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시민들의 통일의식 변화: 이념적 양극화인가, 당파적 편향인가? 한국정치학회보, 50(5), 131-161.

조진만·윤종빈·가상준·유성진(2011). 승자와 패자의 정치관용에 대한 인식 차이와 그 효과. 한국정치연구, 20(2), 29-51.

Altemeyer, R. A., & Altemeyer, B. (1996). The Authoritarian Specter. Harvard University Press.

Baldassarri, D., & Gelman, A. (2008). Partisans without Constraint: Political Polarization and Trends in American Public Opin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4, 408-446.

Bobo, L., & Licari, F. C. (1989). Education and Political Tolerance: Testing the Effects of Cognitive Sophistication and Target Group Affect. Public Opinion Quarterly, 53(3), 285-308.

Bougher, Lori D. (2017). The Correlates of Discord: Identity, Issue Alignment, and Political Hostility in Polarized America. Political Behavior, 39(3), 731-762.

Brewer, Marilynn. (1999). Multiple Identities and Identity Transition: Implications for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3(2), 187-197.

Brewer, Marilynn, and Kathleen P. Pierce. (2005). Social Identity Complexity and Outgroup Tolera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3), 428-437.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Converse, Phili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Apter, D,E. (Ed.), Ideology And Discontent. Free Press, New York, 201-261.

Gibson, James L. (2006). Enigmas of Intolerance: Fifty Years after Stouffer's Communism, Conformity, and Civil Liberties. Perspectives on Politics, 4(1), 21-34

Gibson, James L. (2008) Intolerance and Political Re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A Half Century after McCarthyism.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2(1), 96-108.

Gibson, James L. and Richard D. Bingham. (1982). O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Political Tolera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3), 603-620.

Golebiowska, E. A. (2020). The Mechanisms behind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Political Tolerance. Politics, Groups, and Identities, 8(5), 937-956.

King. P. (1976). Toleration. George Allen and Unwin. London.

Kozlowski, Austin C. & Murphy, James P. (2021). Issue Alignment and Partisanship in the American Public: Revisitng the 'Partisans without Constraint' Thesis. Social Science Research, 94, 1-16.

Lawrence, David G. (1976). Procedural Norms and Tolerance: A Reassess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0(1), 80-100.

Lazarsfeld, Paul, Bernard Berelson, and Hazel Gaudget. (1944). The People’s Cho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Malka, Ariel, and Yphtach Lelkes. (2010). More Than Ideology: Conservative-Liberal Identity and Receptivity to Political Cues. Social Justice Research, 23(2-3), 156-188.

Marcus, G. E., Theiss-Morse, E., Sullivan, J. L., & Wood, S. L. (1995). With Malice toward Some: How People Make Civil Liberties Judgem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son, Lilliana. (2015). “I Disrespectfully Agre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Partisan Sorting on Social and Issue Polar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1), 128-145.

Mason, Lilliana and Julie Wronski. (2018). One Tribe to Bind Them All: How Our Social Group Attachments Strengthen Partisanship. Advances in Political Psychology, 39(1), 257-277.

McClosky, H. (1964). Consensus and Ideology in American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8(2), 361-382.

McClosky, H., & Brill, A. (1983). The Dimensions of Tolerance: What Americans Believe about Civil Liberties. Russell Sage Foundation.

Mondak, Jeffrey J. and Mitchell S. Sanders. (2003). Tolerance and Intolerance, 1976-1998.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3), 492-502.

Mutz, Diana C. (2002). Cross-Cutting Social Networks: Testing Democratic Theory in Pract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1), 111-126.

Nie, Norman H., Jane Junn, and Kenneth Stehlik-Barry. (1996).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ightingale, Donald (1974).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Organizational Behavior Research and Issues. ed. George Strauss. Belmont: Industrial Relations Research

Rogowski, Jon C., and Joseph L. Sutherland. (2016). How Ideology Fuels Affective Polarization. Political Behavior, 38(2), 485-508.

Sniderman, P. M. (1975). Personality and Democratic Politics. Univ of California Press.

Sniderman, Paul M, Philip E. Tetlock, James M. Glaster, Donald P. Green, and Michael Hout. (1989). Principled Tolerance and the American Mass Public.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 25-45.

Stouffer, S. A. (1955). Communism, Conformity, and Civil Liberties: A Cross-Section of the Nation Speaks Its Mind. Transaction Publishers

Sullivan, J. L. & J. Transue. (1999). The Psychological Underpinnings of Democracy: A Selective Review of Research on Political Tolerance, Interpersonal Trust, and Social Capita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 625-650.

Sullivan, J. L., Piereson, J., & Marcus, G. E. (1979).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Political Tolerance: Illusory Increases 1950s-1970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3), 781-794

Sullivan, J. L., Marcus, G. E., Feldman, S., & Piereson, J. E. (1981). The Sources of Political Tolerance: A Multivariate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1), 92-106.

Sullivan. John L., James E. Piereson, & George E. Marcus. (1982). Political Tolerance and American Democra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aifel, Henri, and John Turner.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illiam G. Austin and Stephen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Monterey, CA: Brooks Cole.

Vogt, P. W. (1997). Tolerance & Education: Learning to Live with Diversity and Difference. London: Sage Publication.

Wang, T. Y., and G. Andy Chang. (2006). External Threats and Political Tolerance in Taiwa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9(3), 377-388.

Webster, Steven W. and Alan I. Abramowitz. (2017). The Ideological Foundations of Affective Polarization in the U.S. Electorate. American Politics Research, 45(4), 621-647.

West A. Emily and Shanto Iyengar. (2022). Partisanship as a Social Identity: Implications for Polarization. Political Behavior, 44, 807-838.

Abstract

Analysis on Political Tolerance of the Partisans in South Korea in 2016:

The Interaction Effect of Political Identity and Issue Alignment on Political Tolerance

Minjae Kim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whether the extreme affective polarization of the 2016 Korean party supporters necessarily accompany low political tolerance against the out-group political party. The thesis focuses on the possibility that the level of the alignment of their partisan and ideological identity and its interaction with issue preference consistency can have on their political tolerance. The thesis tried to demonstrate that the high

level of issue preference consistency, which was originally known to deepen affective polarization,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political tolerance in the context of strong partisan identities in the political preferences of the party supporters.

The major finding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First,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level of the supporters' partisan alignmen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ir level of political tolerance. In addition, the consistency of the partisan's issue preference di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both the level of their affective polarization and political tolerance, however, had worked differently in its direction of the effect. Finally, while the level of partisan alignment and issue alignmen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evel of the partisan's political tolerance,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two variabl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Nevertheless, the additional moderating effect graph did reveal the possibility that the high level of issue alignment could meaningfully alleviate the negative effects of partisan alignment on political tolerance in the context of extreme partisan identities in the political preferences of the party supporters.

Taken together, the findings of this thesis suggest that the effect of partisan identity and issue preference consistency of party supporters could work differently on their affective polarization and political tolerance. Furthermore, they also suggest that it is crucial to explore the level of constraints between partisan identity and issue preference when it comes to analyzing political tolerance of the party supporters. This thesis argues that examining how much of those constraints imply cognitive process woul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artisan's political tolerance even in the context of strong political polarization. To sum up,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extreme affective polarization between party supporters does not necessarily involve low political tolerance, and the further academic efforts in addressing interaction effect between political identity and issue preference of party supporters are needed in analyzing the micro basis of political tolerance.

keywords : political tolerance, affective polarization, partisan identity, partisan alignment, issue alignment
Student Number : 2021-26598